http://dx.doi.org/10.15686/FKL.47.0.6

페미니즘의 시대, 보이즈 러브의 의미를 다시 묻다

: 인터넷의 '탈BL' 담론을 중심으로

김효진*

목차

1. 들어가며
2. 탈BL담론의 맥락: 한국사회에서 BL과 후조시, 그리고 '페미니즘 리부트'
3. 탈BL의 세 유형과 사례 분석
4. 나가며

〈국문초록〉

본 논문은 2018년 이후 인터넷을 중심으로 대두한 '탈BL' 담론이 어떤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등장했는지를 고찰하고,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있다. 탈BL은 보이즈 러브(Boys Love, BL)을 탈출하거나 버리자는 운동으로 BL의 다양한 문제를 비판하고 궁극적으로는 BL의 소비와 창작을 멈추자는 의미를 갖는다.

한국사회에서 BL은 1990년대 일본에서 유입되어 수용되었고, 2000년대에는 문화산업에서 적극적인 소비자로서 BL팬덤이 부각되었다. 이런 배경 위에 2010년대 이후 후조시의 자기성찰과 페미니즘 리부트의 영향권에서 탄생한 탈BL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 1) 게이와 게이혐오에 기반한 탈BL, 2) BL이 공수관계를 통해 현실 남녀의 권력관계를 강화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탈BL, 3) 구조적으로 여성캐릭터를 배제하는 장르로서 BL을 비판하는 탈BL이 그것이다. 1)과 2)가 상대적으로 BL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기존 BL연구의 성과와 연관이 있다면

*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조교수

3)의 경우는 세계적인 페미니즘의 조류 속에서 여성서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세 유형의 탈BL은 모두 현실, 표상과 환타지의 복잡한 관계를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고, BL의 문제점을 창작자의 문제로 환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탈BL 담론의 문제점을 고찰함으로써 대중문화와 여성의 문화적 실천의 관계, 나아가 BL이 갖는 가능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국문핵심어 : 탈BL, 보이즈 러브, 후조시, 페미니즘 리부트, 여성혐오, 여성서사

1. 들어가며

2018년 8월경부터 한국어권 트위터를 중심으로 '탈BL(탈비엘)'[1]이라는 용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2] 탈BL은 BL을 탈출하거나 버리자는 운동으로 BL의 다양한 문제를 비판하고 궁극적으로는 BL의 소비와 창작

1) BL은 보이즈 러브(Boys' Love)의 약자로서 일반적으로 상업적으로 출판된 창작물로서, 남성과 남성간의 동성애적 관계를 가볍고 밝게 다룬 작품군을 일컫는다. 원래 줄임말이었지만, 현재에는 '비엘'로 읽고 그 자체가 보이즈 러브를 대신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그 형식과 내용에서 많은 부분이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아이돌 팬픽션(idol fanfiction, 이하 팬픽)까지 BL에 포함하여 논의하기도 한다. 'BL'과 '비엘'의 두 용어는 실제 상호 동일하게 사용되며, 이 중에서 자판을 변경할 필요가 없는 '탈비엘'이 더 많이 쓰이는 경향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 의미를 보다 잘 보여주는 '(#)탈BL'을 사용하지만 검색 결과 등은 '(#)탈비엘'의 결과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부기해둔다.

2) 탈BL이 한국의 트위터에서 2019년 초반에 많이 회자되었다는 점은 트위터상의 인기 키워드를 수집하는 다음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http://trending-topics.co/search.php?g=kr&u=%ED%83%88%EB%B9%84%EC%97%98 이 사이트에 따르면 2019년 2월 20일-3월 초경까지, 그리고 8월 초에 한국 트위터에서 탈BL 키워드의 사용 빈도가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종접속일: 2019년 8월 19일)

을 멈추자는 의미를 갖는다. #(해쉬태그)를 붙여 쓰기도 하는 탈BL을 트위터로 검색해 보면 그 기세는 조금 꺾였지만, 2019년 8월 현재도 상당한 수의 트윗이 이에 대해 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그림 1)[3]

싫어도 해야 하는게 인권운동' 인데 BL을 좋아하면 '부역자고, 가부장제 기여자고, 여혐러'이며 '페미아님'이라는 평가를 듣는 것이 바로 BL이라고 주장하는 이 트윗은 상당히 극단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트위터 뿐만 아니라 올빼카페 등 10대, 20대 여성이 주로 사용하는 소위 '여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BL의 여성혐오를 지적하고 탈BL을 강조하는 내용의 포스팅이 많은 지지를 얻고 이것이 또 트위터에 옮겨지는 등, 다양한 논쟁이 존재했다. 또한 이는 단순히 트위터 상의 논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2019년 1월말에서 2월초에 걸쳐 인기 BL작가인 그 웬돌린(https://twitter.com/Bloomingspring3)의 익명 애스크폼에 BL이 여혐이라는 점을 계속 지적하면서 BL을 쓰지 말고 보다 바람직한 '여성서사'를 쓰라는 요구와 인터넷 상에서 비난이 지속되어 결국 작가가 법적인 대처를 천명하였고, 현재도 사건이 진행중이다.[4] 실제 자신이 구입한 BL책과 만화를 찢거나 파괴한 후에 #탈BL을 넣은 트윗에 그 사진을 업로드하거나, 원래 BL작가였던 자신을 반성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BL의

3) 현재 이 트윗은 연구자 본인의 스크린샷(그림 1) 이외에는 작성자가 계정을 삭제하여 온라인에서 검색이 불가능하고, 트윗의 원본 url도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이 트윗을 패러디하여 '트페미(트위터 페미의 줄임말로 비하어로 사용됨)'를 풍자하는 다음과 같은 게시물이 DCinside에 남아 있고 그 당시 트윗의 스크린샷이 첨부되어 있어 연구자 본인의 스크린샷과 조합한 결과, 계정을 확정할 수 있었다.
"트페미의 헛소리를 현실적으로 바꿔봄"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twitter&no=556426&page=1, 2019년 2월 19일 작성. (최종접속일: 2019년 8월 19일) 또한 이 글을 처음 구상했던 2019년 2월 당시에 참고했던 극단적인 트윗들은 삭제되거나, 프로텍트 계정으로 전환하면서 현재 검색이 어렵다. 상대적으로 실시간성과 트렌드 반영에는 유리하지만 기록으로 남기기는 어려운 트위터의 특징이 드러난다.

4) 논쟁의 내용은 작가의 애스크폼에서 아직도 확인 가능하다.
https://ask.fm/Bloomingspring3/best (최종접속일: 2019년 8월 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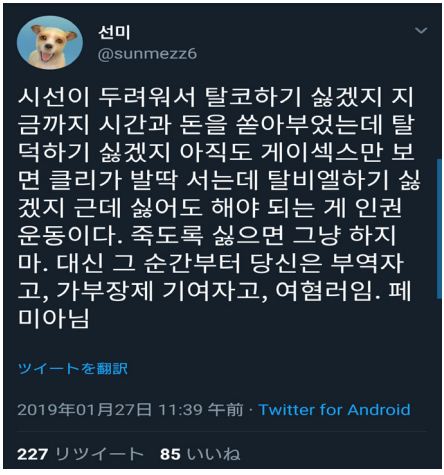


그림 1 선미컴션중돈줘@sunmezz6의 트윗

문제점을 길게 올리는 경우도 눈에 띈다.[5]

이에 대해서 BL을 옹호하는 트윗도 물론 적지 않았고, 2018년 후반기에 비해 2019년 7월 현재, 탈BL로 트위터에 검색하면 BL을 옹호하는 트윗도 상당히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탈BL을 둘러싼 논쟁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논쟁이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페미니즘과 대중문화의 관계에 대한 논쟁으로서, 단순히 특정 대중매체에 대한 일회성의 논쟁에 머무르지 않을 파급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 측면에서 이 논쟁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BL비판과 BL옹호라는 두 입장 모두 '페미니즘'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탈BL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보면 BL은 여성들이 남성주인공들의 호모섹슈얼한 관계를 소비함으로써 여성캐릭터를 배제하고 남성에게 자신을 이입하게 만드는, 현실사회의 여성혐오(misogyny)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6] 이에 대해 BL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보면 BL이야말로 여성이 주체적으로 창작하고 소비하는 거의 유일한 장르로서 출판시장에서 여성작가가 주류를 점하고 있

5)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은 트윗을 참고하라. https://twitter.com/FEMi_zi/status/1053254727977193472 (최종접속일: 2019년 8월 19일)

6) BL에 대한 논문은 아니지만, 서구의 팬픽션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Christine Scodari "Resistance Re-Examined: Gender, Fan Practices, and Science Fiction Television," *Popular Communication*, 1:2, 2003, pp.111-130, DOI: 10.1207/S15405710PC0102_3의 논문이 대표적이다.

다는 점[7]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대중매체이다. 이 두 입장 모두 페미니즘과 젠더연구에서 BL을 논의할 때 우리가 쉽게 만나는 논리이고, 그만큼 익숙한 것이다.

둘째, 이런 논의가 학계가 아니라 트위터 등 일반대중이 사용하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동성애혐오(homophobic)적인 외부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BL비판이 대세였지만, 최근의 논쟁은 실제 BL을 애호하거나 애호했던 여성들을 중심으로 찬반을 논하는 논쟁이 주로 SNS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탈BL 논의를 시작하고 참가하는 것이 대부분 젊은 여성(주로 10대-20대)으로, 이들이야말로 한국에서 BL을 가장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연령층으로 간주된다.[8]

셋째, 탈BL의 계기를 외부적 요인보다는 내부적 요인, 즉 페미니즘적 자기 성찰(self-reflection)에서 찾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대중장르로서 BL은 여성 중심의 문화적 실천으로 평가받는 반면, 그 내용과 표상을 둘러싸고 다양한 비판을 받아 왔다. BL이 대중장르로서 발생하고 발전해 온 일본의 경우, 가장 대표적인 비판은 BL팬덤의 외부자지만 BL에서 표상되는 남성 캐릭터들과 현실에서 대응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게이에 의한 야오이 비판인 <야오이논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본의 BL팬들은 이 비판에 대해 BL을 일시적인 도피처로 간주하거나, 자신들에게 있어 BL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의 태도로 반응했다.[9]

그러나 한국의 탈BL은 외부의 비판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여성, 그것도 다수가 원래 BL팬들에 의한 페미니즘적인 자기 성찰(self-reflection)의

---

7) 미조구치 아키코, 김효진 역, 『BL진화론: 보이즈 러브가 사회를 움직인다』, 이미지프레임, 2018, 21-22쪽.

8) 물론 모든 탈BL논의가 '생물학적 여성'에 의해서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가상현실로서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탈BL논의에 참가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여성'으로 정의하고 논쟁에 참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 '생물학적 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논의에서는 오히려 '후조시(腐女子)'라는 사회적 젠더로서 참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9) '야오이논쟁'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개에 대해서는 미조구치 아키코, 앞의 책, 93-128쪽을 참조하라.

결과라는 점이 특징이다. 그 결과 BL을 창작, 소비하는 쾌락을 부정하고 장르 자체를 문제시하고 있는 탈BL은 어디까지나 '여성을 위한' 행동이 되고, 표상의 대상인 성소수자로서의 게이와 호모포비아에 대한 성찰과는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한국 여성들은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BL은 절필되어야 할 장르라고 비판하는 것인가? 2010년 이전의 한국에서 게이, 혹은 남성 간의 동성애적 관계를 묘사한 대중콘텐츠가 인기를 끌었을 때 이를 가장 강력하게 지지한 것이 여성이 주류인 BL팬덤이었다는 점[10]을 고려했을 때, 이는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1990년대 이후 약 30년에 걸쳐 한국에서 여성이 주도하는 문화적 실천으로서 BL이 수용되고 발전해 온 상황에서, 탈BL이 어떤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대두하였는지를 고찰한다. 나아가 이것이 기존의 가부장제와 게이혐오에 바탕한 종교적인 보수파에 의한 BL비판과는 어떻게 다른가를 탈BL을 주장하는 다양한 인터넷, SNS 게시물을 분석하고 유형화함으로써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본문의 분석내용을 토대로 탈BL 담론의 의미를 평가하고 이 담론에서 배제, 혹은 망각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할 것이다.

2. 탈BL담론의 맥락: 한국사회에서 BL과 후조시, 그리고 '페미니즘 리부트'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BL과 야오이가 수용되기 시작한 계기로는 군부정권이 무너지고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0년대 초, 오자키 미나미(尾崎南)의 <절애>와 <브론즈>의 해적판이 출판된 것을 들 수 있다.[11] 물론 한국의 순정만화 작가들은 그 이전부터 다양한 루트를 통해

10)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증언이 남아 있다. 구체적인 것은 본문에서 상술하고자 한다.
11) 차효라, 「여성이 선택한 장르, 야오이」, 『만화세계정복』, 만화집단두고보자, 2003,

일본의 동인지문화에 먼저 접촉하고 그 영향을 받아 왔지만 대중적으로 일본의 야오이와 BL이 수용된 것은 이 해적판의 영향이 컸다. 그리고 이 시기는 한국에서 PC통신이 본격적으로 발달한 시기로, 정보의 공유가 쉬워진 것도 영향을 끼쳤다. 이후 한국만화시장의 발달과 콘텐츠산업의 발달, 그리고 아이돌 산업에 기반한 팬픽션의 인기와 동인지 관련 이벤트의 증가 등 한국의 BL팬덤은 점차 성장하게 된다.[12]

이에 대해 1990년대 한국의 주류사회는 이를 '일본대중문화의 악영향'으로 간주하고, 특히 동성애 관련 콘텐츠를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하는 등, 보수적인 태도를 취했다. 2004년에 들어서야 동성애 관련 콘텐츠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 지정이 폐지되면서 정부에 의한 인터넷 검열은 사라졌지만, 기독교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한 주류사회의 이런 움직임은 2010년대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3]

한편, 2000년대 이후 한국 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세계적인 전개를 고찰할 때, 소위 '동성애코드'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K-POP아이돌은 물론이고[14] 한국영화의 다수가 남성들간의 호모소셜한 유대를 묘사하고 그것을 여성관객이 지지하는 구도였다는 점[15] 또한 사실이다. 실제로 성소수자에 대해 불관용한 사회적 분위기와는 달리 2000년대 이후

233-243쪽

12) 김효진, 「한국 동인문화와 야오이; 1990년대를 중심으로」, 『만화애니메이션연구』 제30호,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63-291쪽.

13) 성소수자운동에 대하여 반대운동을 펼쳐온 기독교보수세력이 주된 반대세력이다. 「온라인에 GL BL 등 동성애물 넘쳐난다…"청소년 위해 한국교회 대책 세워야"」, 『기독일보』 2016년 2월 12일자, http://bitly.kr/zWqGfUN (최종접속일: 2019년 8월 19일)

14) 남성 K-pop 아이돌에 대해 한국 여성팬들이 갖는 '게이 환타지'에 대해서는 Kwon Jungmin, *Straight Korean Female Fans and their Gay Fantasies*, University of Iowa Press, 2019, pp.1-30을 참조하라.

15) 영화에서 제시되는 브로맨스에 대해 여성이 소비자로 소환되는 구도는 다음 논문에서도 상세히 다루어지고 있다. 손희정, 「촛불혁명의 브로맨스 - 2010년대 한국의 내셔널 시네마와 정치적 상상력」, 『민족문학사연구』 제68호,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8, 521-548쪽.

한국의 영화시장에서는 남성동성애를 테마로 한 작품이 연속으로 히트했고, 이 현상의 원인을 BL에 익숙한 '동인녀' '후조시' 덕분이라고 평한 영화평론가와 매스미디어도 적지 않다.[16]

또한 해외에서 인기를 얻은 남성 K-POP아이돌 그룹의 경우, 아이돌 팬픽의 인기와 함께 그룹멤버 사이에서 커플링하여 그것을 호모섹슈얼한 커플로서 소비하는 경향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즉, 2000년대 한국의 문화산업에서 남성간의 동성애 코드를 애호하는 여성소비자의 존재는 적지 않은 비중을 갖는 것이었고, 그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17]

이렇게 BL팬덤의 소비자적 측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2010년대부터 한국의 후조시[18] 본인들에 의한 독립출판물이 기획되고 텀블벅 등을 통해 제작되었다. 이는 2000년대 후반 일본에서 오타쿠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여성 오타쿠로서 BL을 애호하는 후조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관련 콘텐츠가 증가한 현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후조시 본인들에 의한 독립출판물은 『잡지후조』(2015), 『잡지빠순』(2017), 『메타후조』(2017)[19] 등이 있는데, 이들은 한국

16) 게이임을 커밍아웃한 영화평론가 서동진의 발언이 유명하다.

17) BL팬덤의 경우, 아마추어로서 실제 동인지 등을 자비출판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소비자와 생산자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한국 문화산업의 맥락에서는 소비자로서만 소환되는 경향이 강하다. 구체적인 것은 구체적인 것은 김효진, 「'동인녀(同人女)'의 발견과 재현 －한국 순정만화의 사례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제30호,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3, 43-76쪽을 참조하라.

18) 후조시는 일본어 腐女子의 발음을 한글로 표기한 것으로 "첫번째는 야오이 BL로 불리는 남성간의 동성애를 테마로 한 소설과 만화를 애호하는 여성을 가리키고, 두번째는 오타쿠계 여성, 즉 오타쿠적 취향을 가진 여성 전반을 일컫는 것이기도 하다." 자세한 것은 김효진, 「후죠시는 말할 수 있는가? 여성오타쿠의 발견」, 『일본연구』 제45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2010, 27-49쪽을 참조하라.

19) 이들 독립출판물의 텀블벅 페이지url은 다음과 같다.
『잡지후조』(https://tumblbug.com/hujomagazine), 『잡지빠순』(https://tumblbug.com/ppassn), 『메타후조』(https://tumblbug.com/metafujo) (모두 최종접속일 2019년 8월 19일)

의 오타쿠/후조시 커뮤니티에서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메타후조』는 맹렬한 반발을 받았는데, 그 이유로는 이 책이 BL, 아이돌 팬픽에 등장하는 게이의 표상에는 실제의 성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비판하면서 스스로의 욕망을 직시하라는, 후조시의 자기성찰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던 점이 크다.

최근 탈BL담론을 생각했을 때도 『메타후조』에서 제기된 후조시의 자기성찰은 매우 흥미롭다.[20] 이때 '메타후조'는 영어의 메타(meta)와 후조시의 후조를 합성한 것으로 BL작품 및 후조시 문화에 대해서 분석하는 10명 남짓의 필자가 글을 기고한 무크지의 성격을 띄고 있다. 이 책에서 정의하는 메타-후조시란 "후조시와 후조문화에 대해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거나 '비평적인 거리 두기'를 시도하는"[21] 사람들, 구체적으로는 "자기 자신과 자기가 하는 일(덕질)에 관해 그 내부 범위 밖에 그것을 지켜보는 또 다른 자기 감시의 시점을 설정하여 자기가 하는 일의 전체구조가 조망되면 세부 항목에 이르러 조목조목 비평하는 과정을 거칠 줄 아는, 혹은 이 사고 과정이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훈련된 후조시"이다.[22]

그리고 그 목적은 "후조시 간에 어떤 위계를 매기고 낙인 찍으려 함이 아니라 후조시를 말하는 후조시, 즉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탐구하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후조시를 호명하여 발언의 기회를 더 만드는 것이 후조 담론 활성화와 동인문화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23]하기 때문이다.

이때 <메타후조>가 강조하는 후조시의 자기 성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1) 후조시문화가 무의식적으로 기대온 현실의 호모포비아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2) BL은 남성의 표상을 빌린다는 점에서 페미니스트적 시각에서는 문제적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

20) 실제 이 책의 기고자 중 반수 이상이 탈BL을 지지하는 입장을 이후 트위터 등에서 표명하였다.
21) 토토메리, 「메.타.후.조?- '메타-후조'의 정의와, 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메타후조』, 독립출판물, 2017, 28쪽.
22) 위의 글, 20쪽.
23) 위의 글, 28쪽.

있다. 1)과 2)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 1) 야오이는 현실 속 남성 성 소수자의 이미지와 그들이 처한 사회적 압력을, 당사자가 아닌 여성의 쾌감을 위해 활용하는 콘텐츠이기 때문입니다. 야오이 속의 동성애 이미지를 소비하면서 실제 성소수자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는 상태로는 성소수자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만을 학습하게 되며, 이는 함께 살아가는 동료 시민의 현실은 외면하면서 이들을 타자화시킨 이미지만을 포르노로 소비하는 호모포비아적 상황에 가담하는 것입니다.[24]
>
> 2) '왜 꼭 남체의 스킨을 내세워 자신은 뒤로 물러나 모든 것을 관음하는 포지션으로 성반전의 욕구를 실현하고 상징 권력을 까야 하는가?'라는 의문은 기본적으로 여성인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어디까지나 자신은 물러선 입장에 만족하는 후조시로서의 자의식과, 여성인 자신을 긍정하고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강화해 나가야할 당위를 지닌 페미니스트로서의 자의식이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나올 수 밖에 없는 문제제기이다.[25]

흥미로운 것은 이런 후조시의 자기 성찰이 지닌 두 방향성 중에서, 2018년 이후 등장한 탈BL담론은 2)의 방향성만을 선택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2)는 환언하자면 후조시로서의 정체성과 페미니스트로서의 정체성은 근본적으로 모순, 충돌한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으며, 『메타후조』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필진들도 전반적으로 이런 입장에 공감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런 '페미니스트적 시각에서 본 BL의 문제점'이 부각된 직접적인 계기로서 2015년 이후 한국의 '페미니즘 리부트' 현상의 중요성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페미니즘 및 젠더연구, 미디어연구, 사회학과 인류학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에서 BL 및 팬픽션에 대해 여성의 문화적 실천으로서 그 의미를 높게 평가해 왔던데 대해,[26] 페미니즘 내부에서 의문

24) 요리사안, 「후조시의 원죄- 후조시는 왜 현실 호모에 대해 알아야 하는가」, 『메타후조』, 독립출판물, 2017, 87쪽.
25) 토토메리, 위의 글, 29쪽.

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의 문화산업이 콘텐츠의 주요한 소비자로서 젊은 여성을 타겟으로 삼아 동성애 코드를 이용했다는 사실에 대한 페미니즘의 비판이 바로 그것이다.

예를 들어 손희정은 2015년 발표한 논문 「페미니즘 리부트: 한국 영화를 통해 보는 포스트-페미니즘, 그리고 그 이후」에서 한국의 후조시 문화가 결국 여성을 배제한 콘텐츠의 양산에 기여한 것은 아닌가라는 비판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논문은 후조시 문화는 개방적인 의미를 갖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소비의 영역에 머물러 있을 뿐이라고 비판하고 "그것이 시장을 확장하는 것 이외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것이 실제로 여성들의 삶 자체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견인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27]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평가에 대해서는 몇 가지 반박이 가능할 것이다. 우선 1) 후조시문화의 의미를 소비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다고 보는 것은 후조시의 문화적 실천이 지닌 창작과 소비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간과하는 것이라는 점, 2) 거대자본에 의한 문화산업에 등장하는 남성의 표상을 여성이 중심이 되는 창작문화인 BL과 후조시문화에서 차용되는 남성의 표상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쟁의 여지가 있다. 또한 3) BL이 장르로서 처음 성립한 30년 전, BL이 여성들에게 가졌던 해방적인 의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흥미로운 것은 실제 손희정의 논문에서는 소비자로서의 후조시 비판뿐만 아니라,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의 페미니즘이 내포한 자유주의적 페미

---

26) 2019년 현재, 한국에서도 BL, 야오이 혹은 팬픽션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논한 학술적 연구들이 다수 축적되어 있다. 대표적으로는 류진희(「팬픽: 동성(성)애 서사의 여성 공간」, 『여성문학연구』 제2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8, 163~184쪽)는 팬픽이 팬픽이반이라는 청소년들의 문화적 실천을 낳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중문화의 변태적 현상으로 부각된 팬픽이 사실은 사회적 변형을 이끌어내는 적극적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은 정당하다"(182쪽)고 높게 평가하고 있다.

27) 손희정, 「페미니즘 리부트: 한국 영화를 통해 보는 포스트-페미니즘, 그리고 그 이후」, 『문화과학』 제83호, 문화과학사, 2015, 14-47쪽.

니즘적 경향, 그리고 “타자화의 동학과 절대적인 ’적대‘의 세계관”[28]에 대한 경계도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메타후조』에서 표명된 후조시의 자기 성찰이 결국 타자에 대한 인식보다는 페미니스트로서 자의식에 대한 강조로 귀결되었던 것처럼, 이 논문의 해석 또한 한국 페미니즘에서 주체를 둘러싸고 전개된 논쟁, 즉 ‘생물학적 여성’에 대한 중시와 맞물려 여성이 소거된 한국영화처럼, BL은 여성이 스스로 ‘남성의 몸을 빌린’ 결과, 여성이 배제되는 장르로서 비판받는 근거를 제공하게 되었다.

3. 탈BL의 세 유형과 사례 분석

2019년 7월 시점에서 탈BL에 대한 담론은 크게 세 유형으로 나뉜다. 1) 게이와 게이섹스에 대한 혐오에 바탕한 탈BL, 2) BL의 공수관계는 삽입권력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현실 남녀의 권력관계를 고착화하고 강화하고 있다는 비판, 3) 남성표상이 중심으로 여성이 배제되는 장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다. 1)과 2)에 대해서는 앞에 소개한 1990년대 일본의 야오이논쟁 및 기존의 BL비판[29]에서도 논의되었던 내용이지만 사실상 3)은 2015년을 전후하여 새롭게 등장한 비판이며, BL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30] 여기서는 탈BL의

28) 위의 글, 46쪽.

29) 미조구치는 『BL진화론』에서 ‘정형BL’을 비판하면서 이들이 가진 문제점을 크게 호모포비아, 공수로 나뉘어 헤테로커플의 젠더역할 연기, 애널섹스의 과용, 강간묘사의 과용으로 정리하고 있다. 탈BL 담론의 두 번째 유형은 이런 논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30) 한편 서구의 팬픽션 전통에 대해서는 미디어연구의 분야에서 팬픽션의 ‘페미니즘적 가능성’이 기존의 연구들만큼 큰 것은 아니며, 주류 미디어가 정치적으로 올바른 표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오히려 반동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비판적 논의가 2000년대 이후 등장했다.(Scodani 같은 글 참조) 다만 이는 전통적인 미디어연구의 관점에서 본 지적으로 BL팬덤과 같이 수용과 생산이 동시에

세 유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들이 BL에 대해 무엇을 묻고 있는가에 대해 고찰한다.

1) 게이와 게이섹스에 대한 혐오에 바탕한 탈BL

이 유형은 BL에 그려지는 게이와 게이섹스가 미화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현실에서는 추한 남자들이 더러운 섹스, 특히 애널섹스를 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게이 섹스가 반드시 애널섹스인 것도 아니고, 또한 애널섹스가 게이의 전유물인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게이혐오를 선동하고 있다. 또한 게이의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투고되는 여성혐오적 게시물을 소개하면서 게이가 여성을 혐오하는 이상 여성도 게이를 혐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BL은 게이를 미화하고 여성들이 맹목적으로 게이를 추종하도록 만드는 장르이므로 여성들은 탈BL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그림 2와 같은 트윗을 들 수 있다.

보수 기독교의 세력이 강력하고 보수적인 성관념 전통을 가진 한국사회에서는 이런 게이혐오가 만연한 것이 사실이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 한국의 동인녀와 후조시가 BL, 야오이, 팬픽션을 적극적으로 수용, 소비하고 생산해왔으며 2000년대 이후 제작된 게이 감독의 게이 영화 및 동성애 영화를 지지해 온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후조시와 게이의 연합이라고도 불릴만한 이런 상황은 2015년을 전후로 한 한국 인터넷 중심의 페미니즘, 즉 페미니즘 리부트가 소위 '생물학적 여성'만의 페미니즘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게이와 트랜스젠더 등 여성이 아닌 성소수자의 배제, 그리고 남성 장애인등의 배제를 강조하는 노선이 대두한 것을 계기로 사라지고 있다. 래디컬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이들은 게이와 MTF를 적으로 상정하면서 그들은 결국 한국 남성으로 가부장제 국가와 사회에서 남성으로 우대받았으면서도 그 특권을 인식하지

일어나는 역동적인 팬덤 커뮤니티가 존재하고, 이들이 비주류이지만 상업 장르로서 성립하고 있는 일본 및 동아시아의 사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 또한 강조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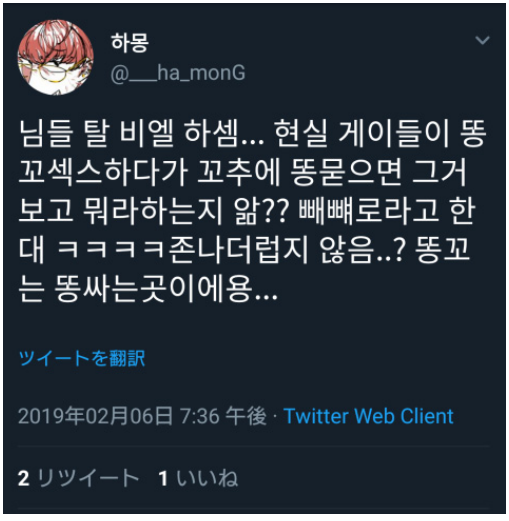


그림 2 하몽@___ha_monG의 트윗
(https://twitter.com/___ha_monG/status/1093095978968596480, 현재 비공개)

못하고 여성들의 해방운동인 페미니즘에 편승하여 프리라이드(free ride)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기존의 BL비판, 즉 동성애혐오와는 다른 맥락의 BL비판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애널섹스는 비정상이고 비도덕적이라는 주장에 덧붙여, 환타지로서 BL과는 달리 현실 게이는 성욕 밖에 없는 더럽고 추한 존재라고 단정한다. 즉 이들은 판타지로서 BL이 여성들의 쾌락을 위해 남성간의 동성애적 관계를 대상화하고 미화하는 것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성소수자인 게이에 대한 성적 대상화이자 착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자아성찰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31]

오히려 BL을 통해 여성들이 [여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남성, 특히 게이들에게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고, 그 결과 게이들을 동정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유형의 탈BL은 BL팬들이 오직 환타지로 접한 게이를 이상화한 결과, BL을 애호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외모가 추하고 나이가 들었으며 병에 시달리는 게이의 현실'을 알게 되면

31)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90년대 일본 '야오이 논쟁'을 제기한 게이 인권운동가 사토 마사키의 논의를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토는 크게 야오이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보고 있다. 1) 게이에 대한 성적 대상화, 2) 외모지상주의(lookism), 3) 게이의 현실에 대한 몰이해가 그것이다. 자세한 것은 미조구치, 앞의 책, 99-104쪽을 참조하라.



그림 3 BL속 게이와 현실 게이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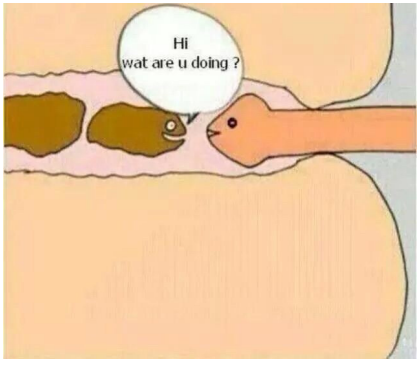


그림 4 '탈BL짤'로 유통되었던 애널섹스 묘사 일러스트

이들을 혐오하게 되어 BL을 탈출하게 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 결과, 이 유형에서는 '게이의 현실을 알려서' 여성들을 BL환타지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한 혐오스럽고 충격적인 일러스트나 이미지를 많이 사용한다. 구체적인 예를 보자. 그림 3은 BL이 여성들에게 게이가 아름답고 멋진 것이라고 세뇌하지만 실제 게이는 더럽고 혐오스러운 존재라는 점을 단적으로 비교하는 일러스트이다.[32] 이에 대해 그림 4는 애널섹스를 대변과 매치함으로써 생리적인 혐오감을 유발하는데, 일러스트의 대사가 영어인 점을 고려하면 아마도 서구의 반동성애 세력이 제작하여 유통한 것이 탈BL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33]

2) 공수관계를 통해 현실 남녀의 권력관계를 강화하는 BL에 반대하는 탈BL

32) 그림 3이 사용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주세영@rat2at2o_ 2019년 1월 7일 오전 4:16 https://twitter.com/rat2at2o_/status/1082249519872405504 (최종접속일 2019년 8월 19일)

33) 그림 4가 사용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6**B**살남@6P9_SALNAM 2019년 1월 6일 오전 8:01https://twitter.com/6p9_salnam/status/1081943742888632320, (최종접속일 2019년 8월 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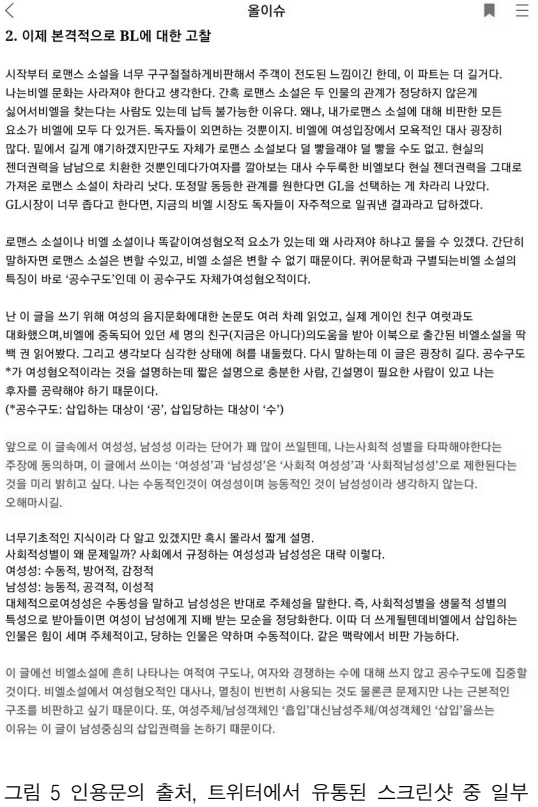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한국의 젊은 여성이 중심이 되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점차 강한 페미니스트 성향을 보인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도 포털사이트인 다음(DAUM)에 개설된 올빰카페는 10대~20대 여성이 중심인 커뮤니티로 2015년 전후부터 페미니즘에 대해 다양한 포스팅이 올라오게 되었다. 커뮤니티에 게시된 다양한 게시물 중 인기가 있는 것은 스크린캡처되어 이미지가 트위터에도 유통되는 등, 한국의 포털사이트 바탕의 커뮤니티와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는 각 미디어의 특수성도 있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방식으로 트위터에서 유통된 게시물의 이미지 중에서 BL의 공수관계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 게시물이 많은 호응을 얻었는데[34],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은 도입부에서 헤테로 로맨스소설에서 묘사되는 남녀관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BL이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본론으로 하고 있는데, 앞부분에서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페미니즘에서 흔히 지적되는 '젠더론'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다. 최근 트위터를 중심으로 한 후조시들 사이에서 '젠더론'에 대한 입장 표명이 흔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탈BL 또한 이 흐름 위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잘 드러나 있다.

> 너무 기초적인 지식이라 다 알고 있겠지만 혹시 몰라서 짧게 설명.
> 사회적 성별이 왜 문제일까? 사회에서 규정하는 여성성과 남성성은 대략 이렇다.
> 여성성: 수동적, 방어적, 감정적
> 남성성: 능동적, 공격적, 이성적
> 대체적으로 **여성성은 수동성을 말하고 남성성은 반대로 주체성**을 말한다. 즉 **사회적 성별을 생물적 성별의 특성으로 받아들이면 여성이 남성에게 지배받는 모순을 정당화**한다. 이따 더 쓰게 될텐데 **비엘에서 삽입하는 인물은 힘이 세며 주체적이고, 당하는 인물은 약하며 수동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비판 가능

34) 트위터의 마이리(@dlemakdlf) 계정이 2019년 2월 스크린샷으로 트윗하여 상당한 리트윗을 받았지만 현재는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이다. 다만 구글 등에서 이미지는 여전히 찾아볼 수 있다. (그림 5)

하다. (이하 강조는 연구자)


올이슈

2. 이제 본격적으로 BL에 대한 고찰

시작부터 로맨스 소설을 너무 구구절절하게비판해서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긴 한데, 이 파트는 더 길거다.
나는비엘 문화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간혹 로맨스 소설은 두 인물의 관계가 정당하지 않은게
싫어서비엘을 찾는다는 사람도 있는데 납득 불가능한 이유다. 왜냐, 내가로맨스 소설에 대해 비판한 모든
요소가 비엘에 모두 다 있거든. 독자들이 외면하는 것뿐이지. 비엘에 여성입장에서 모욕적인 대사 굉장히
많다. 밑에서 길게 얘기하겠지만구도 자체가 로맨스 소설보다 덜 빻을래야 덜 빻을 수도 없고. 현실의
젠더권력을 남남으로 치환한 것뿐인데다가여자를 깔아보는 대사 수두룩한 비엘보다 현실 젠더권력을 그대로
가져온 로맨스 소설이 차라리 낫다. 또정말 동등한 관계를 원한다면 GL을 선택하는 게 차라리 나았다.
GL시장이 너무 좁다고 한다면, 지금의 비엘 시장도 독자들이 자주적으로 일궈낸 결과라고 답하겠다.

로맨스 소설이나 비엘 소설이나 똑같이여성혐오적 요소가 있는데 왜 사라져야 하냐고 물을 수 있겠다. 간단히
말하자면 로맨스 소설은 변할 수있고, 비엘 소설은 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퀴어문학과 구별되는비엘 소설의
특징이 바로 '공수구도'인데 이 공수구도 자체가여성혐오적이다.

난 이 글을 쓰기 위해 여성의 음지문화에대한 논문도 여러 차례 읽었고, 실제 게이인 친구 여럿과도
대화했으며,비엘에 중독되어 있던 세 명의 친구(지금은 아니다)의도움을 받아 이북으로 출간된 비엘소설을 딱
백 권 읽어봤다. 그리고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에 혀를 내둘렀다. 다시 말하는데 이 글은 굉장히 길다. 공수구도
*가 여성혐오적이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짧은 설명으로 충분한 사람, 긴설명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나는
후자를 공략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수구도: 삽입하는 대상이 '공', 삽입당하는 대상이 '수')

앞으로 이 글속에서 여성성, 남성성 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쓰일텐데, 나는사회적 성별을 타파해야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며, 이 글에서 쓰이는 '여성성'과 '남성성'은 '사회적 여성성'과 '사회적남성성'으로 제한된다는
것을 미리 밝히고 싶다. 나는 수동적인것이 여성성이며 능동적인 것이 남성성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오해마시길.

너무기초적인 지식이라 다 알고 있겠지만 혹시 몰라서 짧게 설명.
사회적성별이 왜 문제일까? 사회에서 규정하는 여성성과 남성성은 대략 이렇다.
여성성: 수동적, 방어적, 감정적
남성성: 능동적, 공격적, 이성적
대체적으로여성성은 수동성을 말하고 남성성은 반대로 주체성을 말한다. 즉, 사회적성별을 생물적 성별의
특성으로 받아들이면 여성이 남성에게 지배 받는 모순을 정당화한다. 이따 더 쓰게될텐데비엘에서 삽입하는
인물은 힘이 세며 주체적이고, 당하는 인물은 약하며 수동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비판 가능하다.

이 글에선 비엘소설에 흔히 나타나는 여적여 구도나, 여자와 경쟁하는 수에 대해 쓰지 않고 공수구도에 집중할
것이다. 비엘소설에서 여성혐오적인 대사나, 멸칭이 빈번히 사용되는 것도 물론큰 문제지만 나는 근본적인
구조를 비판하고 싶기 때문이다. 또, 여성주체/남성객체인 '흡입'대신남성주체/여성객체인 '삽입'을쓰는
이유는 이 글이 남성중심의 삽입권력을 논하기 때문이다.

그림 5 인용문의 출처, 트위터에서 유통된 스크린샷 중 일부

최근 인터넷의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이 생물학적 여성을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놓고 "젠더론 안사요"라는 말로 대표되는 젠더연구의 성과를 거부하는 움직임을 집단적으로 취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여성성이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속성을 가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생물학적 성별은 아무런 가치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여성성은 부정적인 속성의 집합으로 간주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BL은 기본적으로 삽입하는 쪽(공)과 삽입당하는 쪽(수)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 구도 자체가 헤테로 섹스의 삽입 섹스, 즉 주체적인 남성과 수동적인 여성을 모사하고 있다는 점이 여성혐오적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BL은 남성과 남성의 관계를 묘사하지만 실제로는 삽입하는 공이 남성을 대변하고 삽입당하는 쪽이 여성을 대변하게 되며, 실제 사회에서 남성의 문란함이나 폭력에 대해 관대한 반면 여성의 성적 순결과 수동성을 요구하는 이중 잣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비엘이 묘사하는 섹스의 대부분이 강간인데 이것은 강간 미화로 연결될 위험성이 있고 수가 자신을 강간한 공에게 휘둘리는 것 또한 현실에서 강간피해자인 여성이 겪는 고통을 생각해 볼 때 문제가 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처음에는 삽입 여부에 따라서 '공'과 '수'로 나뉜다고 설명하면서 중간중간에 '공(남성)'과 '수(여성)'이라는 식으로 병기하고 있는 지점이다. BL의 공수관계는 헤테로로맨스에서 남녀관계와 유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은 남성이고 수는 여성이라는 가정을 당연한 것으로 본다. 나아가 BL이 공수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장르인 이상 이런 남녀의 권력문제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이 글은 단언한다.

그리고 BL이 앞으로 새로운 단계에 들어간다고 해도 결국 "중요한 캐릭터가 남성인 BL은 소설의 특성상 '남성'에 이입하여 '남성'을 동경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글을 쓴 이의 주장이다. 이것이 그대로 남성숭배로 연결되어 남성을 동경하게 되면 절대로 남성을 대상화하거나 타자화할 수 없게 된다. 남성숭배와 여성의 타자화라는 속박을 분리할 수 없는 상태에서 BL을 계속 소비한다면 남성에 공감하여 남성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아이러니컬하게도 BL에서는 공수관계로 구현되는, '삽입섹스'를 통해 구성되는 권력관계를 절대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문제적이다. 이 글의 논리를 따른다면 헤테로섹스에서 삽입섹스의 중요성, 그리고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남녀관계의 권력차는 헤테로섹스

가 존재하는 한 결코 전복되거나 역전될 수 없다. 삽입권력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시작한 이 글은 오히려 결과적으로 BL에서 재현되는 삽입섹스가 어디까지나 헤테로섹스의 그것을 모사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한 나머지, 섹스에서 삽입관계가 있는 한 남성은 주체적이고 여성은 수동적이라는 기존 사회의 젠더 관념을 바꿀 수 없는 것으로 만들고 있다.

나아가 공수관계를 삽입에서의 능동, 수동성에 따라 권력이 있는 쪽과 없는 쪽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 또한 지나치게 도식적인 이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헤테로 로맨스소설이나 BL의 장르적 공식에 익숙하지 않은 외부인에게는 공수관계에서 수가 권력관계에서 약자로 비칠 수 있으나, 실제 BL팬덤에서 바라보는 공수관계는 이와는 양상이 다르다.[35] 헤테로 로맨스 소설에서 그러하듯이 BL팬의 많은 수가 수에 이입하며, 이는 표면적으로는 공이 권력을 가진 것처럼 묘사되지만 관계의 주도권을 가진 쪽은 수일 때가 많다는 것이다. 공이 가진 권력은 공이 얼마나 매력적인 존재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런 매력적이고 권력을 가진 존재가 수와 사랑에 빠짐으로써 수가 주도권을 획득하게 되는, 즉 공이 수의 쾌락과 욕망을 위해 봉사하는 존재가 되는 관계성의 낙차를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저자가 생각하는 좋은 BL의 조건(거의 없다고 단언하고 있는)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공수의 구분이 필요 없고(**섹스포지션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리버시블이란 단어조차 유명무실하고)
> 2. **관계에 있어 수가 중심이 되며 수가 절대적으로 우월**하고 (사실 1번에서 공수구분이 불필요한 상태라면 2번은 필요조차 없다. 그런데 1번의 조건을 갖춘 소설이라도 기본 공수구도를 탑재하고 거기에 사회적 성벽을 주입한다. 1번과 2번

35) 관련해서 흥미로운 점은 글의 저자가 관련 논문을 읽었고 게이 친구와 대화했으며 인기있는 BL을 100권정도 추천받아 읽었다고 밝히고 있는 부분이다. 특히 게이섹스에서 '탑''바텀' 관계가 고정적이지 않은데 BL의 공수관계는 고정적이라는 점에서 헤테로섹스를 모사한 것이라는 지적 등은 실제 BL연구에서 논의되어온 내용이다.

은 상충하고 이게 문제다. 비엘은 절대로 공수구분을 벗어날 수 없다. 벗어났다면 그건 퀴어문학이지.)
3. 여성캐릭터를 단발성, 소모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그가 수의 여성성을 질투하는 캐릭터로 전락하거나 전형적인 악녀로 분하지 않는 소설 (연구자 강조)

우선 2.에 대해서는 섹스포지션에 따라 공과 수의 권력차가 발생한다는 저자의 관점과는 달리, 앞에서 살펴본 바 BL에서는 섹스포지션에서 '삽입당하기' 때문에 '수동적'인 수가 표면적인 권력차와는 달리 오히려 관계성의 성격이나 미래를 결정짓는 역할을 한다는 점은 앞에서 서술한 바 있다.

또한 1.에 대해서는, BL에서 공수관계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삽입섹스에 의한 남녀의 권력차는 극복될 수 없는 본질적인 것으로 환원되는 논리의 역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둘 다 남성인 공수커플보다 헤테로 커플에서 삽입섹스가 더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며, 삽입을 전제로 하는 한 헤테로섹스의 권력관계는 절대로 바뀔 수 없기 때문이다.[36]

마지막으로 3.에 대해서는 최근의 BL에서 다양한 스타일과 개성을 지닌 여성캐릭터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3) 구조적으로 여성캐릭터를 배제하는 장르로서 BL을 비판하는 탈BL

지금까지 살펴본 바, 1)은 페미니즘을 주장하면서도 그 내용이 실제로는 게이와 게이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혐오라는 점, 그리고 실제로 한국 주류사회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2)는 BL의 공수관계는 현실의 남녀관계를 고착화하고 독자를

36) 공수는 어디까지나 남성이기 때문에 적어도 가상으로라도 삽입섹스에서 공수관계의 역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헤테로커플에서 삽입섹스는 신체적 특징으로 인해 역전이 불가능하다. 즉 공수로 표현되는 삽입섹스로 인한 권력차의 절대성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헤테로커플의 권력차는 생물학적으로 전복불가능한 것으로 절대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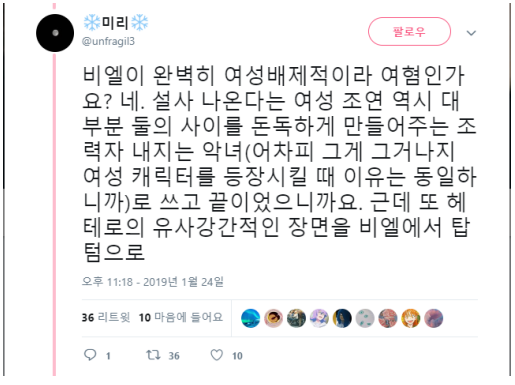


그림 6 BL이 여성배제적이라는 주장의 사례

남성중배로 이끈다고 주장한다. 1)은 보수세력의 비판에서 흔히 나오는 논리이고 2)는 BL의 문제점으로서 BL연구 내부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BL의 성립 초기, 특히 고전적인 BL을 대상으로 한 비판에 더 가깝고 이미 BL이 야오이까지 포함하여 약 60년, 그리고 일본을 넘어서 동아시아에서 상업장르로서 성립한지 30년 이상이 된 2010년대의 상황에서 봤을 때 과연 최근의 BL에 적합한 비판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이유로는 최근 일본의 경우 BL의 상업화 역사가 길어지면서 성소수자의 현실을 반영한 작품이 증가하고 있고, 독자들에게도 점차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의 비판은 BL 공수관계를 남녀관계에 그대로 대입함으로써 독자들의 작품 소비와 자기동일화의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삽입섹스가 가정하는 남녀의 권력차를 절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그림 7 '여성서사'표

그러나 여기서 분석하는 3)의 입장은 보다 복잡한 것으로 현재 세계적인 트렌드가 된 페미니즘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다 주의할 필요가 있다. 1)과 같은 단순한 게이 혐오, 2)가 보여주는 BL장르의 역사 및 변화에 대한 무지와는 달리 콘텐츠에서 여성의 표상과 여성서사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나온 비판이기 때문이다.

이 유형에서 BL의 문제점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여성의 배제>, 보다 정확하게는 <여성캐릭터의 배제>이다. 예를 들면 그림 6과 같은 트윗을 들 수 있겠다.[37]

물론 이것은 최근 한국의 탈BL에서만 제기된 논점은 아니다. 앞에서 소개한 야오이논쟁에서 사토의 비판에 대응하여 쿠리하라 치요는 '여자절'로서 야오이의 효용도 있지만 결국 여성으로서 자신의 욕망을 인정하고 야오이를 졸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38] 또한 2015년 일본에서 출판된 『여자BL(女子BL)』이라는 BL작가들의 앤솔로지 작품집에서는 BL안에서 여성(독자, 캐릭터 등)의 위치는 어디인가라는 질문이 테마인 앤솔로지로 쿠리하라의 고민과 형태는 달라도 어느 정도 공유되고 있는 스탠스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여성캐릭터에 대해서 과거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작품이 증가하고 있고, 여성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하지 않아도 여성작가와 여성독자가 지배적인 출판시장으로서 BL이 여성의 욕망을 표현하는 여성서사라는 점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한국의 탈BL에서는 여성캐릭터의 배제는 곧 여성서사의 소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것은 2.에서 논했던 바, 2000년대 이후 한국의 대중문화콘텐츠 다수가 남성간의 호모소셜한 유대를 묘사했던 사실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또한 이는 한국만의 경우는 아니다. 성소수

37) ❄미리 ❄@unfragil3, 2019년 1월 24일 오후 11시 18분 https://twitter.com/unfragil3/status/1088697593297661952 (최종검색일: 2019년 8월 19일)

38) 미조구치 아키코, 앞의 책, 114-11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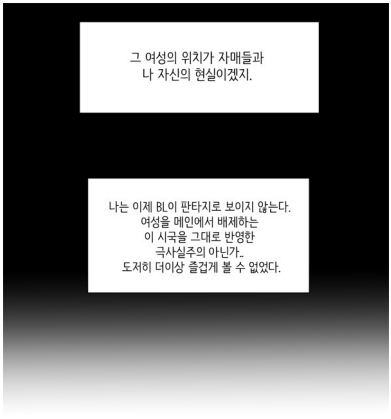


그림 8 웹툰 「BL탈출기」중 일부

자운동과 함께 서구에서는 페미니즘의 흐름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고 헐리우드에서 여성배우에 대한 차별문제와 #MeToo운동이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남성 오타쿠들의 전유물로 간주되어 왔던 게임산업에서도 GamerGate문제 등, 여성 창작자에 대한 배싱이 사회적인 비판을 받았다. 이런 흐름 속에서 여성캐릭터와 성소수자 캐릭터가 보다 많이 등장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서사에 대한 요구도 높아졌다. 여성의 표상이 보다 정치적으로 올바른 맥락 위에서 활용되는 작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이다.

현재, 한국의 탈BL에 찬동하는 대부분의 여성은 이런 기준, 즉 '여성캐릭터가 어느 정도 비중을 점하고, 어느 정도 주체적으로 묘사되는가'를 기준으로 대중문화 콘텐츠를 판단하려고 하고 있다. 그 결과, BL은 남성 주인공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이미 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장르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탈BL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여성서사'란 어떤 것일까? 여기에서 2018년 중반 이후부터 인터넷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여성서사표'(그림7)를 소개하고자 한다. 작성자는 @Designergoja라는 트위터 유저[39]인데, 이 기준에서 보면, BL은 말 그대로 '알탕' 장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여성캐릭터가 악역으로 나올 때가 많으며, 여성과 페미니즘에 대한 악영향이라는 점에서는 다른 대중문화콘텐츠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 오히려 BL은 여성이 애호하는 장르로서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거부하고

39) 다음 포스팅에 자세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https://m.blog.naver.com/wjdalstar/221391439007 (최종접속일: 2019년 8월 19일)

남성, 특히 게이에 대한 동경을 갖게 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한 것으로 간주된다. 나아가 이러한 관점에는 여성 작가와 독자가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남성의 표상을 이용한다는 BL의 장르적 전제, 즉 주체의 다중동일화(multi-identification)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거나 무시된다.[40]

3)의 논리를 만화로 표현한 탈BL웹툰의 사례도 흥미롭다. 「BL탈출기」(그림 8)는 격류작가의 만화로 자신의 블로그에 2019년 1월 20일 업로드 되었고, 3월 2일 「Do you know 탈BL/탈남캐?」[41] 프로젝트의 일부로도 소개되었다. 이 만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작가가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의 포스팅을 읽고 BL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고 쓰고 있는 부분이다. 이 포스팅은 '남자는 남자만을 동등한 사람으로 생각함/ 그러므로 동경하고 사랑하는 것도 남자뿐. 여성은 그저 자신의 성취 과시용 트로피로만 가질 뿐, 진정한 교감은 같은 남자끼리만 나눈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읽은 작가가 지금까지 소비해온 브로맨스(Bromance)적인 작품, 또는 BL에 나오는 ""여캐 배제하고 남캐끼리만 주연 꿰차고 메인 서사 쓰며 알탕 보글보글 끓이는" 이 모습이 너무 현실의 그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BL은 판타지라고 하기엔 우리네 현실을 너무 잘 투영했는데 단지 카메라 배율이 너무 높아 잘 안 보였을 뿐이었다"라고 깨닫는 부분이다.

1)과 2)에서 소개한 탈BL의 논리는 주류사회의 편견과 차별에 기반하거나, BL의 역사와 변화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론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3)에서 제기되어 있는 문제는 그리 정교하지는 않지만 페미니즘의 발전과 변화하는 문화산업이라는 상황과 맞물려 BL의 존재 의의는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제기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40) 미조구치, 앞의 책, 80-81쪽, 270-276쪽의 논의를 참조하라.

41) 「두유노 탈BL/탈남캐?」([출처] 두유노 탈BL/탈남캐?|작성자 project069, 2019. 3. 2. 19:48)https://blog.naver.com/project069 (최종접속일 2019년 8월 19일)

4. 나가며

지금까지 살펴본 탈BL의 유형에 공통적인 입장을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사고방식이 될 것이다. 표상과 환타지, 그리고 현실을 같은 것으로 간주하고, 표상은 현실의 반영이고 작가의 메시지가 콘텐츠에 그대로 표현되어 그것이 아무런 해석의 여지없이 독자에게 도달하며 독자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규정한다는 사고방식이다. 물론 콘텐츠의 힘, 그리고 표상과 환타지의 영향력은 쉽게 무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과 환타지, 표상의 관계를 단순하게 파악하는 논리의 위험성도 매우 크다.

무엇보다 여기에서 소개한 탈BL의 논리는 모두 BL의 표상과 현실의 관계성 만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작가와 독자의 의지와 욕망은 전혀 고찰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다. 표상을 바꾸는 것이 현실을 바꾸는 것과 그대로 연결되는가? 그 이전에 문화산업으로서 자본의 개입에 바탕하여 만들어지는 대중문화의 콘텐츠에 대해서 이러한 논리가 어느 정도 의미를 갖는가? 그리고 근본적으로 한국 사회의 여성혐오와 여성차별이 BL을 소비하지 않는 행위, 혹은 BL을 절필함으로써 달성되는가? 가장 중요한 이 질문에 대해 탈BL담론은 아무런 답을 제공하지 않는다. 오직 BL은 여성배제적이며 여성혐오적이기 때문에 배제되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이 반복될 뿐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비판점으로서 고려해야 할 것은 이 논리에는 BL작가-프로페셔널 뿐만 아니라 아마추어를 포함하는-의 입장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모든 비판은 독자, 환언하자면 콘텐츠의 '소비자'측 입장에서 성립하는 것으로 BL의 생산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작가의 동기, 즉 작가들이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고,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결여되어 있다. BL 작품이 독자와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만이 강조된 나머지 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여성을 차별하는 사회도 아니고, 남성의 욕망을 강조하면서 여성혐오적인 작품

을 기획, 유통하는 대규모 문화자본도 아니며, 권력을 지닌 남성도 아닌 바로 BL작가들이 되는 것이다.

실제 이런 논리가 횡행한 결과, BL작가에 대한 공격이 일어나고 있다. 우선 복수의 BL만화가, 소설가가 자신의 작품을 연재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내용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코멘트가 증가하여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토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강간이나 성인과 청소년의 연애가 묘사되는 경우, 비윤리적이고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표현으로서 작품 코멘트란에 작가의 윤리관을 비난받기도 한다. 또한 지면의 제약으로 여기서는 구체적인 논의는 삼가겠지만 1.에서 잠시 언급했던대로 유명 BL소설가 그웬돌린에게 익명 질의의 형식을 빌어 BL을 그만두고 GL(Girls' Love)작품이나 여성서사 소설을 쓰라고 주문하는 질문이 계속 투고되었고 그를 작가가 거부하자 작가가 다른 작품을 표절했고 여성혐오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는 의혹이 여성커뮤니티 중심으로 유포되어 작가가 결국 트위터 계정을 닫고 법적인 대응을 천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여성중심서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BL은 절필되거나 폐기되어야 하는가? 혹은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BL은 변화해야만 하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약 60년 전 일본 여성들이 BL의 역사를 만든 이유, 그리고 30년 전 한국에서 여성들이 열렬하게 이를 받아들여 여성 중심의 팬문화를 만들어온 의의는 탈BL에서는 왜 망각되고 있는가?

나아가 현재까지 BL에 자신을 기탁하거나, 혹은 그를 통해 욕망을 충족해온 여성들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자신의 욕망을 반성하고 다시 거듭나야 하는가? 특히 여성들의 장르로서 BL이 갖는 사회적 영향력이 실제 주류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되는 한편, 탈BL에서는 모든 대중문화 콘텐츠를 지배하는 것처럼 논의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한국의 탈BL을 보다 깊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대중문화와 여성의 실천이 맺는 관계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논의를 우리에게 제기하기 때문이다.

요시나가 후미는 BL과 페미니즘에 대해 <여성으로서 느끼는 '불편함'>이라는 소제목 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42] BL은 "현재 남녀의 존재방식에 무의식적으로라도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읽는 것"이지만 BL 독자들 중 순수하게 BL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BL과 페미니즘을 바로 연결짓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독자들이 과연 페미니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일까? 요시나가 후미는 이렇게 말한다: "말 앞에 "저 페미니스트는 아닌데요"라고 말하면서 회사에 대한 불만을 말한다면 그거야말로 페미니즘이잖아."

탈BL을 논하기에 앞서 우리가 숙고해야 할 지점은 바로 이것이다. 대중장르로서 BL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 즉 문법이나 표현, 주제, 표상하는 집단과의 관계 등은 각각 변화하는 사회와 시대상과 필연적으로 모순되거나 갈등을 일으킨다. 그러나 BL은 그 요소들의 단순한 조합으로만 환원될 수 없다.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 [여성을 차별대우하는] 회사에 불만을 말하는 것'이 페미니즘이라면 BL 또한 그 내부의 다양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이성애규범사회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억압하는 사회에 대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많은 여성 대중이 여전히 이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명확한 사회문화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BL이 때때로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체제유지적인 욕망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사회적 소수자인 여성이 주류인 창작자와 독자가 이를 통해 표현하고 충족할 수 있는 욕망과 쾌락이 있다. 콘텐츠의 창작과 소비라는 이중적인 정체성을 지닌 집단으로서 동인녀와 후조시에게 BL은 다양한 남성 중심적 서사를 자신들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재전유할 뿐만 아니라, 비당사자성과 당사자성의 이분법을 뛰어 넘어 타자에 대한 폭넓은 상상력과 성실한 이해로 이어지는 하나의 통로로서 기능한다.

BL작가인 요시나가 후미가 소녀만화 작품「오오쿠」와 청년만화작품「

42) よしながふみ『よしながふみ對談集 あのひととここだけのおしゃべり』, 白泉社, 2007, 82쪽.

어제 뭐 먹었어?」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장르로서의 BL의 의미를 천착할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표현 양식으로서 BL이 지닌 가능성이자 정치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탐색해야 한다.[43]

현실에 오염되지 않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언어로 작품을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 새로운 작품이 그 언어들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요리사안, 「후조시의 원죄- 후조시는 왜 현실 호모에 대해 알아야 하는가」, 『메타후조』 독립출판물, 2017, 70-89쪽.

토토메리, 「메.타.후.조?- '메타-후조'의 정의와, 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메타후조』, 독립출판물, 2017, 18-31쪽.

2. 단행본

미조구치 아키코, 김효진 역, 『BL진화론: 보이즈 러브가 사회를 움직인다』, 이미지프레임, 2018, 93-128쪽.

Kwon Jungmin, *Straight Korean Female Fans and their Gay Fantasies*, University of Iowa Press, 2019. pp.1-30.

よしながふみ『よしながふみ對談集 あのひととここだけのおしゃべり』白泉社, 2007, 82쪽.

43) BL의 가능성을 가장 폭넓게 탐색하고 있는 작가로서 요시나가 후미에 대한 논문으로는 김효진, 「요시나가 후미의 「오오쿠」(大奥): 역사적 상상력과 여성만화의 가능성」, 『일본비평』 제6호,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14, 134-163쪽; 김효진, 「'당사자'와 '비당사자'의 사이에서: 요시나가 후미 만화의 게이 표상을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제56권 2호,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019, 79-112쪽을 참조하라.

3. 논문

김효진, 「후죠시는 말할 수 있는가? 여성오타쿠의 발견」, 『일본연구』 제45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2010, 27-49쪽.

_____, 「한국 동인문화와 야오이; 1990년대를 중심으로」, 『만화애니메이션연구』 제30호,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11, 263-291쪽.

_____, 「'동인녀(同人女)'의 발견과 재현 －한국 순정만화의 사례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제30호,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3, 43-76쪽.

_____, 「요시나가 후미의 「오오쿠」(大奥): 역사적 상상력과 여성만화의 가능성」, 『일본비평』 제6호,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14, 134-163쪽.

_____, 「'당사자'와 '비당사자'의 사이에서: 요시나가 후미 만화의 게이 표상을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제56권 2호,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019, 79-112쪽.

류진희, 「팬픽: 동성(성)애 서사의 여성 공간」, 『여성문학연구』 제2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8, 163-184쪽.

손희정, 「페미니즘 리부트: 한국 영화를 통해 보는 포스트-페미니즘, 그리고 그 이후」, 『문화과학』 제83호, 문화과학사, 2015, 14-47쪽.

_____, 「촛불혁명의 브로맨스 - 2010년대 한국의 내셔널 시네마와 정치적 상상력」, 『민족문학사연구』 제68호,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8, 521-548쪽.

차효라, 「여성이 선택한 장르, 야오이」, 『만화세계정복』, 만화집단 두고보자, 2003, 233-243쪽.

Christine Scodari "Resistance Re-Examined: Gender, Fan Practices, and Science Fiction Television," *Popular Communication* 1:2, 2003, pp.111-130, DOI: 10.1207/S15405710PC0102_3

Abstract

Rethinking the Meaning of BL in the Feminist Era
: Online Discourse on "Leaving BL" in Late-2010s Korea

Kim, Hyojin

In this article, I analyze 'Leaving BL (Boys Love)' discourses, which recently have emerged in Korean-based internet, and classify them into three types on the basis of their logics. Leaving BL, which literally means 'escape from BL' or 'avoid BL', is an online-based movement aiming to quit women's creation and consumption of BL contents by criticizing the problematic aspects of BL from a feminist perspective.

BL was imported in the 1990s Korea, and the 2000s observed the emergence of BL fandom as enthusiastic consumers of the thriving cultural industry in Korea. Under this kind of circumstances, Leaving BL has appeared, strongly influenced by amateur fanzines on fujoshi's self-reflection and 'feminism reboot', both in the mid-2000s. Leaving BL comprises of three different types: 1) Leaving BL aggravating deep-rooted homophobia against gay, 2) focusing on BL as strengthening unequal power relations between men and women in BL's seme (penetrating)-uke(penetrated) relationship, and 3) criticizing the exclusion of female characters in BL. While 1) and 2) are related to homophobia on the basis of religious conservatives and the established BL studies respectively, 3) is relatively new in its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women's narratives,' following the recent feminist movements on a global

scale.

All types of Leaving BL, however, tend to simplify the complexity of relationship between reality, representation, and fantasy, and ascribe the problematic aspects of BL to BL creators, most of whom are women. In order to explore the potentiality of BL as one of women's most popular genres involving their cultural practice, we should pay attention to Leaving BL discourses as a new challenge.

Key words : Leaving BL, Boys Love, Fujoshi, Feminism Reboot, Misogyny, Women's Narrative

■ 본 논문은 2019년 7월 10일에 접수되어 2019년 7월 16일부터 8월 1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9년 8월 19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